

남문인 지화문의 야경. 남한산성 4개 성문 가운데 가장 크고 웅장하다.

###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우리나라 산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서울을 지켜온 2대 산성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시차를 두고 구축돼 한눈에 산성 발달사를 살필 수 있어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곳에서 청에 항복했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멋진 성벽과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남한산성의 매력을 살펴본 국방저널 7월 호의 기획 기사 '성곽순례'를 요약,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 반하리! 아름다움에 통탄하리! 아픈 역사에

서울 지켜온 2대 산성...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에 항복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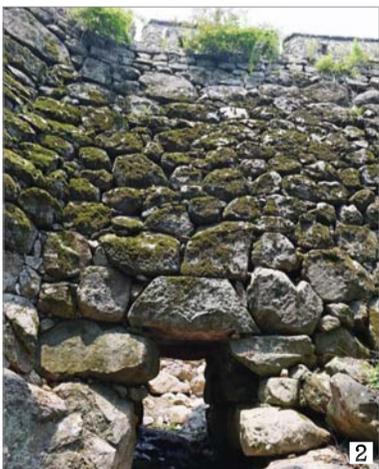
해발 500m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남한산성은 둘레 11.76km의 성벽을 구축하고 있다. 외성·옹성을 제외한 본성 규모는 7545m로 내부 면적은 212만6637㎡에 이른다. 처음 축조된 것은 신라 문무왕 13년(673)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후 고려 때는 몽골군 침입에 항전하는 거점이 되기도 했다. 지금 모습으로 개축된 것은 조선 인조 2년(1624)으로 알려졌다.

남한산성에는 동문인 좌익문(左翼門)과 서문인 우익문(右翼門), 남문인 지화문(至和門)과 북문인 전승문(全勝門)이 있다. 좌익문은 보수 중이라 온전한 모습을 볼 수는 없는 상태다. 우익문은 가장 작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세자와 함께 항복할 때 이 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현재 보수공사 중이다.

남문은 가장 크고 웅장하다. 조선 정조 때 성곽을 보수하며 지화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전승문은 병자호란 당시 청군과 전투를 치른 곳으로 유명하다. 비록 패배했지만, 당시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에는 독특한 방어시설인 5개의 옹성이 있다. 옹성은 성문 밖으로 한 겹의 성벽을 더 둘러싸은 이중의 성벽을 말한다. 성이 넓어 전체적으로 방어하기에 약점이 있는 곳에 옹성을 쌓았다. 이 밖에도 성곽 여기저기에는 성 밖과 옹성으로 연결되는 통로 구실을 하는 암문이 16개나 된다.

전국 승군 모여든 호국불교의 성지...성 내부에 유적 많이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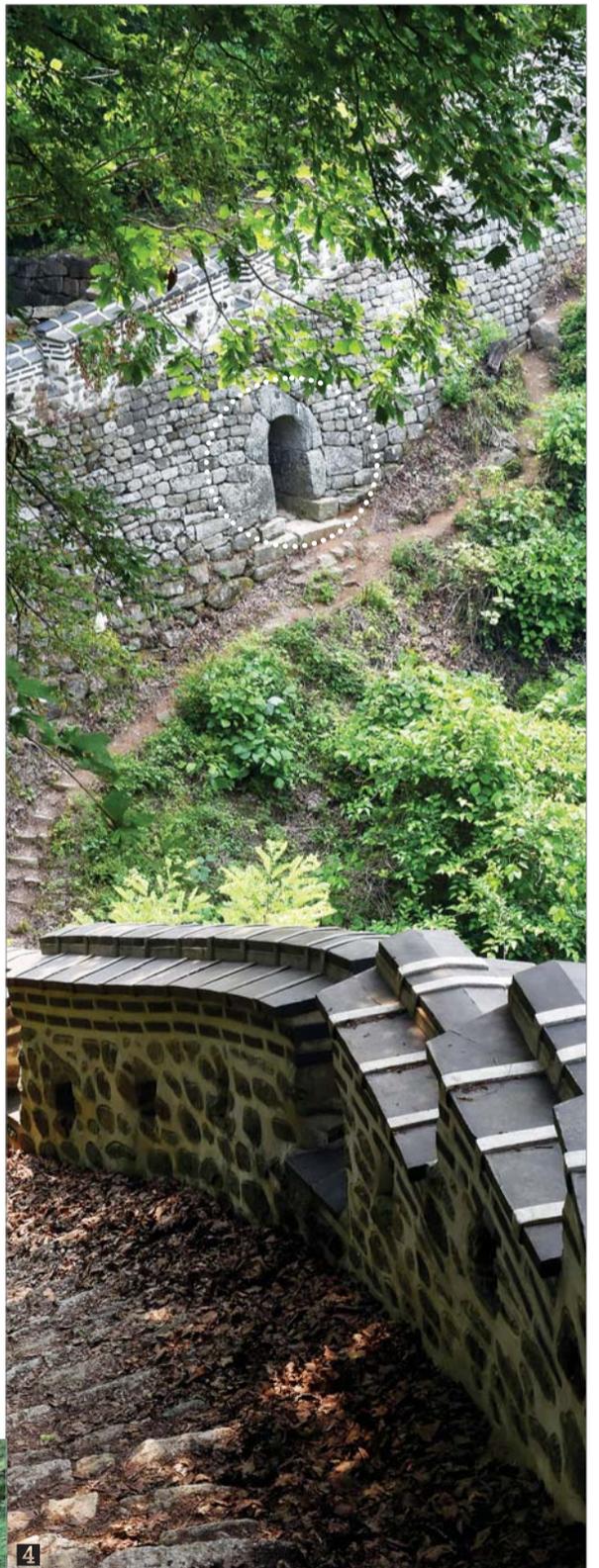
내부에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임금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지냈던 '남한산성행궁(南漢山城行宮)'을 비롯해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누각인 '수어장대(守禦將臺)', 그리고 무기제작소 사무를 보던 곳으로 추정되는 '침괘정(枕戈亭·정확한 한자 발음은 침과정)'이 있다. 또 인조 3년(1625) 군사훈련을 위해 건립한 지휘소인 '연무관(演武館)'과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지수당(池水堂)', 성벽을 쌓을 때 사망한 축성 담당자 이회 장군을 위한 사당 '청량당(淸涼堂)'이 산성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조선 시대 건립한 망월사 등 10개의 사찰은 전국의 승군이 모여 성을 지키고 군기와 화약을 보관한 호국불교의 성지다.



1 장수가 지휘와 관측을 하던 수어장대. 인조 2년(1624) 설치됐다. 원래는 남한산성에 5개의 장대가 같이 지어졌지만 지금은 수어장대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2 동문 옆 수구문 모습. 남한산성의 물이 나가는 곳으로 암문보다 규모가 더 크다.

3 독특한 모습의 제2남옹성이 들꽃과 어울려져 신비감을 자아낸다.



4 5 전승문인 북문에서 봉암성 방향인 오른쪽으로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중간쯤에 나오는 제4암문(점선 안). 성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편집=정임숙 기자